

무성서원중수기(武城書院重修記)

1932_김환일(金煥一) 지음/김수성(金秀聲) 씬_28.0×93.0cm



1932년 김정술(金廷述)과 안항섭(安恒燮)의 주도로 의연금을 모집하여 중수의 자금을 마련하고, 장의(掌議) 윤이병(尹二炳)의 감독 하에 공사가 이루어진 경위를 서술한 기문이다. 기문은 김환일(金煥一)이 지었으며, 김수성(金秀聲)이 썼다. 원일의 명단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어 당시의 서원 운영을 파악할 수 있다.

武城書院重修記

尊賢衛道莫善於書院書院之有關於世道者且大矣是以在昔盛時雖愚夫愚婦莫不高景而以及於修補之節燦然可尚者有矣嗟夫叔季以降人殊其學學殊其途也虛無寂滅惑世誣民甚至及害而滔滔皆是安文成公詩有曰滿庭春草寂無人此時則其時未嘗不嘉寐興歎者也適者族叔廷述氏安斯文恒燮以雅望被選居無何俱失院貌之殘缺不憚心身之勞請助於有志各家門儒林掌議尹君二炳恪勤董役瓦者瓦土者土講堂以下藏修興學齋滲漏傾頽者奠焉改觀次第奏功嗚呼吾道駸駸土氣不振之日是舉也雖一瓦一土之補安知不為異日陽復之漸也歟孟子曰能言拒墨墨者聖人之徒也師吾師學吾學入先生之院者亦先生之徒也然則今日修補之事關於斥邪衛正未必無少補云爾

壬申十月日 道康金煥一謹記

靈光金秀聲謹書

院長 判書	尹用求
院貳 郡守	吳海建
都有司 直員	張瑾秀
進士	金澤
講長	金煥豐
齋長	朴勝斗

訓長	李時轍		金洛峻
	許 鐘		林灝鎭
	姜甲秀		河泰容
執綱	張泳相		金善仲
	朴昇柱		朴榮郁
	金圭哲		金炯哲
摺紳掌議	金讚均		張國遠
	李康鍊		金相玉
	晉在碩		趙相順
	金煥九		金時鍾
	咸宰洙		金千圭
	李權宰		奉億斗
	朴龍淳		金相烈
	朴鍾善	本邑齋長 進士	閔泳頌
	曹秉洪	掌議	金廷述
	黃鶴性	色掌	安恒燮
儒林掌議	申元均	訓長	金成基
	金德煥	色掌	金榮述
	朴慵來		吳海信
	李羲○	本孫掌議	宋榮昌
	金煥權		金永淇
	金容○	色掌	金煥益
	卞東煥	有司	金麟基
	宋濬勉	直月	金煥龍
	金炯洙	直日	朴光用
	安昌正		

무성서원중수기[武城書院重修記]

어진 이를 공경하고 도덕을 지키는 데 서원(書院)보다 좋은 것이 없으니, 서원이 세상의 올바른 도리에 관련되어 있음은 소중하고 또한 중요하다. 이 때문에 옛날 태평성세엔 비록 어리석은 부부(夫婦)라도 인덕(仁德)이 있는 자를 존경하지 않음이 없어서, 수리하고 보완할 때에 이르기까지 빛나게 숭상할 만한 것이 있었다.

아 말세(末世)가 되자, 사람은 학문을 닦지 아니하고, 학문은 그 길을 달리했다. 허무적멸(虛無寂滅)하고 혹세무민하고, 심지어는 해악을 끼치는 일이 견집을 수 없으니 모두 이 같았다. 문성공 안항(安瑒)의 시(詩)에 말하길, "뜰에 봄물만 가득하고 사람이 없다"라고 했으니, 이때가 곧 그때와 같이 일찍이 지나 깨나 탄식하지 않음이 없었다.

이에 집안 아저씨 되는 정술(廷述)과 사문(斯文) 안항섭(安恒燮)이 청아한 명망으로 피선(被選)되었는데, 얼마 뒤에 서원의 면모가 온전하지 못하고 허물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여, 삼신의 수고로움을 꺼리지 않고, 지역 유지와 각 가문, 유림에 도움을 청하였다. 장의(掌議) 윤이병(尹二炳)이 부지런히 공사를 감독하여, 기와를 갈 것은 기와를 갈고, 흙일할 것은 흙일을 하여 강당(講堂) 이하 학문을 닦고 열심히 배우는 건물외 비 새고 기울고 넘어진 것을 환하게 고쳐 차례로 완공하였다.

오호라! 우리의 유도(儒道)가 점점 더 사기(士氣)가 진작(振作)되지 못하는 날에, 이 일을 한 것이 비록 한 개 기와와 한 줌 흙으로 보수(補修)한 것이지만, 후일 도학이 다시 회복되어[闡復] 점차 나아갈 계기가 될지 어찌 알겠는가! 맹자께서 말씀하시길, "능히 말로 양자(楊子)와 묵자(墨子)의 주장을 막는 것은 성인(聖人)의 우리가 하는 일이다"라고 하셨으니, 우리 스승을 배우고, 우리의 학문을 닦아서 선생의 서원에 들어오는 자는 또한 선생의 무리이다. 그런 즉 금일 수리하고 보수한 일이 사특함을 물리치고 정도(正道)를 지킴에 관련되는 것이니 반드시 적다고 말하지는 못하리라.

임신(1932) 10월 일

도강(道康) 김환일(金煥一)은 삼가 짓고,

영광(靈光) 김수성(金秀聲)은 삼고 쓰다.

원장(院長) 판서(判書) 윤용구(尹用求)

원이(院貳) 군수(郡守) 오해건(吳海建)

도유사(都宥司) 직원(直員) 장근수(張瑾秀)

진사(進士) 김택(金澤)

강장(講長) 김환풍(金煥豊)

재장(齋長)	박승두(朴勝斗)
훈장(訓長)	이시철(李時徹)
	허 종(許 鐘)
	강갑수(姜甲秀)
집강(執綱)	장영상(張泳相)
	박승주(朴昇柱)
	김규철(金圭哲)
	김찬균(金讚均)
진신장의(緝紳掌議)	이강연(李康鍊)
	진재석(晉在碩)
	김환구(金煥九)
	함재수(咸宰洙)
	이권재(李權宰)
	박용순(朴龍淳)
	박종선(朴鍾善)
	조병홍(曹秉洪)
	황학성(黃鶴性)
	신원균(申元均)
유림장의(儒林掌議)	김덕환(金德煥)
	박용래(朴壩來)
	이희○(李羲○)
	김환권(金煥權)
	김용○(金容○)
	변동환(卞東煥)
	송준면(宋濬勉)
	김형수(金炯洙)
	안창정(安昌正)
	김낙준(金洛峻)
	임호진(林灑鎭)
	하태용(河泰容)

	김선중(金善仲)
	박영옥(朴榮郁)
	김형철(金炯哲)
	장국원(張國遠)
	김상옥(金相玉)
	조상순(趙相順)
	김시중(金時鍾)
	김천규(金千圭)
	봉억두(奉億斗)
	김상렬(金相烈)
본음재장(本邑齋長) 진사	민영석(閔泳碩)
장의(掌議)	김정술(金廷述)
색장(色掌)	안항섭(安恒燮)
훈장(訓長)	김성기(金成基)
색장(色掌)	김영술(金榮述)
	오해신(吳海信)
본손장의(本孫掌議)	송영창(宋榮昌)
	김영기(金永其)
색장(色掌)	김환익(金煥益)
유사(有司)	김인기(金麟基)
직월(直月)	김환용(金煥龍)
직일(直日)	박광용(朴光用)

※ 번역 : 『무성서원 고문서(현판) 번역 및 자료집』, 정음서, 2020